

建築資材 展示會를 보고

尹 鳳 源 源建社 代表

1. 建築資材 選擇의 重要性
2. 建築士와 資材의 質的向上에 대하여
3. 一般 需要家들의 資材選擇 傾向
4. 現代住宅 施工上에 나타난 資材選擇의 向方
5. 바람직한 建築資材 選擇法
6. 建築資材 生産者들에게 바라고 싶은 점
7. 資材展示會에 바란다면

1. 建築資材 選擇에 重要性

현대의 건축술로 어떠한 設計라도 다 소화되어 建築物이 지어지고 있고 設計되어 가고 있으나 資材選擇의 묘를 기하지 못하여 設計者의 의도를 충분히 反映 못하는 경우가 흔히 벌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建築資材의 시장의 狹小와 需要家の 폭이 좁아 상관관계를 이루기에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設計者로써는 資材選擇시 材質이나 종류, 色相, 強度 등 선진외국에 비해 빈곤한 형편이어서 늘 곤란을 겪어야 하고 意圖대로 選擇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일일이 수입에 依存해서까지 實現하자니 거리감이 있고 經濟的, 時間的 여유가 뒤따르지 못하는 現實이어서 현재 施行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안다.

建築資材 選擇에 重要性 중에도 특히 마감材料의 選擇分野에 대하여 重要性을 強調하고 싶다. 구조체 材料는 장구한 時間에 변천도를 보아서 알듯이 큰 變動이 없는 것으로 안다. 물론 特殊建築分野에서는 例外이겠으나 마감材料 變遷에 우리 인간들은 興味와 關心이 크고 또 많은 變遷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러리라 본다.

아무리 合理的이고 우수한 設計라도 設計者의 意圖대로 마감材料 選擇이 정확치 못하다면 정확치 못한만큼 볼 수 내지는 좋지 못한 建築物을 얻는 結果를 초래하게 된다.

建築資材 選擇은 우선 建築士들의 資材發展像에 대한 情報를 민감히 흡수 소화하여 反映함으로써 시대에 適宜한 建築物을 만드는데 重要한 役割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

만물의 靈長일 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간 삶의 안식처를 또 시시각각으로 變遷 發展되는 인간환경에 適應키 위한 대 작업을 하는 建築士들에 責任은 실로 重要한 것으로 본다. 어려운 작업중에도 資材選擇에 묘는 묘를 지니나 중압감마저 느끼게 된다. 아차 실수로 選擇이 잘못되고 建물이 잘못 지어졌을 때 반영구건물의 壽命 과 비례하여 악명을 듣게 되리라 본다.

그러기에 建築士들의 資材選擇에 重要性은 強調되어야 하고 최신 資材發展像 내지 情報를 입수하는데 게을러서는 안되겠다.

흔히, 실수하는 것은 設計者나 시공자 建築主가 한결 같이 潛在意識 내지는 고정 觀念으로 구태의연케 사용하고 새로운 우수자재를 反映 못하는 경우 좋은 작품을 만들기는 어렵게 되지않나 본다.

우수資材 選擇은 우수한 建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서울지부가 試圖한 資材展示會는 다방면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건축술의 미래발전상에 대하여도 많은 研究와 資材發展이 뒤따른다고 하는 兪연한 사실을 직시하여 폭넓게 選擇에 묘를 기하여 後悔가 없어야 되리라 본다.

우리나라도 과거와는 달리 많은 우수資材 生産이 되고 있고 K. S표시 제품은 외국으로 輸出되는 過程까지 이르렀음을 알고 矜持를 가지고 選擇에 임해야 하겠다.

2. 建築士와 資材의 質的向上에 대하여

建築士와 資材의 質的向上관계는 피치못할 함수관계가

成立하리라 본다. 建築士들의 觀心이나 研究가 바로 建築資材生産에 直結되고 그래서 發展되어 가는 것이 정상적인 發展過程이 아닌가 본다.

設計上 필요해서 注文製作을 하고 우수성이 인정되어 시판되어 진다고 하면 많은 호응도가 따르고 生産해서 企業에 상태를 따지는 뒤진 기업경영 보다는 안전한 企業成長에도 기여될 것으로 안다.

資材生産者인 企業人의 머리도 누구못지않으리라 보지만 실무자이고 專攻을 한 미래까지도 책임을 져야되는 建築士들의 助言내지 자문을 받아 生産에 임하는 過程은 企業에 안전도를 높이는 意味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設計者로서 늘 아쉬워하는 것은 資材生産者들이 실 수요자들의 의사를 反映못하고 營利的인 면만을 고려하여 生産하는 경우를 본다. 실수요자들의 요구하는 趣向 色相, 材質, 形狀, 強度등, 공통점을 잘못 점쳐서 生産함으로 外面당하는 경우를 본다. 예를 든다면 外國資材 흉내를 낸다던가해서 우리나라 생활환경 習性등에 맞지 않는 資材를 生産함으로 재고를 산더미처럼 山積해 놓고 企業은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주변에서 본다.

외국의 生活習性, 환경과 우리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固有한 文化와 生活환경 習性인, 있기에 무조건 外國의 예대로 건축술도 따를 수는 없으리라 본다.

그러기에 建築資材도 우리 實情에 맞게 生産되어야하고 設計되어야 하겠다. 建築士나 生産者가 함께 느껴야 할 責任이 있다면 바로 사회의 기여(寄与)도일 것이다.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한다고 보더라도 최소한 사회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겠다.

현재에 악덕업자도 있겠고 미래의 發展에 저해를 갖어 오는 行爲도 악영향이라고 한다면 資材生産이나 設計時 慎重히 다루어야 한다고 하는 責任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資材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研究하고 發展시켜야 되는 責任이 있으리라 본다. 무책임하고 물지각한 부류들의 불량資材生産은 사회적으로 糾彈받아야 되고 저지되어야 하겠다.

일시적인 作業이 아니고 반영구건물이기에 더욱 責任은 무겁다. 금번 협회의 資材展示會때에는 안내서 표지에 “불량자재 排擊하고 우수자재 사용하자”라고 써있는데 그보다는 우수자재 권장하고 우수자재만을 사용하여 建築하도록 誘導하면 자연 불량자재는 排擊이 되리라 본다.

“애써 지은 불량건물 울면서 헐게된다”라는 글도있다. 허는것을 念慮할것이 아니라 잘지을 것을 염려하는 것만이 예방 표어가 되지않을까 본다. 그러자면 불량자재는 選擇이 없되어야 하겠고 設計도 우수해야 되겠다.

還言하면 研究發展된 우수자재는 展示會를 통해서나언

론기관 또는 建築設計時에 積極 勸獎 실시 되는 方向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행정권을 發動하더라도 법으로 더욱 強力한 지도와 제재가 곁하여 시행되어야 하겠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는 있으리라 본다. 일반 수요자인 建築主나 시공업자들이 한결같이 協調할 수 있는 啓導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점에서 볼 때 建築士나 행정관서 에서는 展示會나 그의 지상 또는 방송을 통하여 啓導 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다. 몰라서 선택못하고 보지 못해서 이해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이해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야 하겠다.

이런점에서 지부에서 主管한 금번 展示會는 높이 評價되고 또 發展시켜 나가야 될 科業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 많은 資材를 더 넓은 場所에서 展示함으로 더 많은 觀覽客을 맞아서 많은 이해가 되도록....

금번 전시회도 예상 보다는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評價되나 아쉽다면 建築士들의 더 적극적인 관람으로 참고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새로운 展示品이 있음은 누구보다 먼저 알고 設計에 敏感히 反映해야 되리라고 보아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속어도 있듯이.....덧붙여 生産者에게 바란다면 우리나라 生産業者중 많은 分野가 ‘畧細하기 때문에 經營에 자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 급히 利益을 追究하는 狀態로 돌입한다.

장래를 기억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측면에서만 급급한 주위만을 생각하여 生産에 임하다 보니 研究하고 發展할 여유가 없고 악덕업자화 하다가 짧게 문을 닫아 버리는 傾向이 있다. 廣告책자에 많은 선전비를 들여 1년도 못되서 도산하는 경우 우수자재가 生産되었으리라 볼수가 없다. 一時的인 生産으로 계속 生産이 막혔기에 設計者들에게 困難을 겪게하는 경우도 흔히 본다.

계속 공사나 增築의 경우 기존 建築資材를 못구해 애를 먹는 경우가 예가 되겠다. 각 分野별로 專攻하고 分業研究하여 發展 향상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되어야 하겠다. 선진외국의 隊列에 서려면 建築資材의 發展이 빠라 주어 야 하겠고 建築士들의 研究發展하는 힘이 생산업체와 協業 諮問하여 이끌어 주어야 하리라 믿는다. 직접 이해 관계가 없다고 소홀히 할것이 아니라 建築 장래發展을 위하여 建設에 일익을 責任진 우리로써는 觀心있게 관찰하고 研究하고 적극 生産者들의 諮問에 임함으로 급 성장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해야 하겠다.

3. 일반 需要者들의 資材選擇 傾向

일반 需要者들의 資材選擇에 대한 觀心이 높아지고 있음은 우선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값싼 資材타령이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 반영구 建物로써 위험하기 짝이없다. 또 구매의연한 사상에 사로 잡혀서 옛날대로 남하는대로 등의 무관심은 올바른 建築이 되기에 거리감이 있다.

다른 建物보다 잘짓기 위하여 욕심은 있으면서 資材選擇에는 인색한 것이 우리들의 주변이 아닌가 싶다. 철저히 研究되고 다듬어진 設計에 틀림이 없는 資材選擇이 뒤따라 주어야 하겠는데 建築主의 무관심과 비협조와 아집으로 建物을 버려놓는 경우가 흔하다.

실수요자인 建築主는 選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서 設計表示 대로 購入하는 과정을 할뿐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設計대로 選擇하느냐 하는 것이다. 設計대로 選擇치 않고 다른것을 고집한다면 잘 될 수 가 없다.

設計 이전에 設計者와 建築主가 충분히 의논하고 견학하고 協議를 거치는 過程은 있을 수 있으나 設計者 에게 지정을 한다거나 고집을 말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흔히 자기집이라는 權限으로 設計分野까지 범해 오는데 자라는 建築主들이 있는데 建築主 자신에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응분의 설계비를 지출하여 創作인 좋은 設計를 얻는 過程이 설계의외 과정인데 옳지않은 閃涉으로 좋지않은 設計結果가 된다면 얻을것을 못 얻는격이 되니 손해가 아닌가?

要約하면 建築主는 設計하고자 하는 建築物에 與件만을 賦與하고 設計는 建築士가 하는 것이고 보면 材料選擇問題도 마찬가지로 意見만을 提示하고 選擇權은 建築士 에게 넘기는 것이 合理的인 方法일 것이다.

建築士가 選擇設計하여 주었을 때 이해를 하는편이 옳은 建築主의 태도이고 建物에 特性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본다. 建築主는 設計를 이해하기 위하여 材料에 대한 넓은 常識을 가질 필요가 있을것으로 본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生産되고 있는 建築材料가 정확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량품이 나돌아 選擇時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專門家도 속을 수 있는데 實需要者인 建築主 자신은 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에 監理者와 협조하여 選擇하는 方法이 無難하리라 본다.

4. 現代住宅 施工上에 나타난 資材選擇의 方向

내실이 強調되고 있고 또 그런 方向으로 建築主들의 要求나 設計에 反映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傾向은 선진외국에 비해 外部裝飾에 급급하고 内部미감공사는 소홀히 하는편이라고 評價하고 있다.

經濟的인 實歷이상으로 外形에 神經을 쓰고 資本投資하는편이다. 實際面에서 考察하면 技能面이 가장 強調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外形보다는 內障面이 徹底하게 處理되어야 하겠고 資金도 投資되어야 하겠다.

安息처로써 편히 사용할수 있도록 形式이나 建築樣式이 문제가 아니라 實生活에 技能的으로 安息처를 提供해 줄 수 있어야 所期의 目的達成을 할수있겠다. 아무리 보기 좋고 멋있는 外形을 갖추었다고 해도 內部가 不便하게 꾸며졌다면 말할것도 없이 미련을 自招하는 격이 된다.

우리들의 周圍도 좀더 內室을 기하고 虛勞를 버릴수 있었서 木末에 살수도 있는 훌륭한 建築을 이루어야 하리라 본다. 우리 周圍에서 보듯이 미니 2층이라 해서 지면 선을 1층높이 만큼 올려 짓는 행위나 불탄서식 지붕이라 하여 뽕족지붕을 만들어 不必要한 空間構成을 하여

經濟的인 損害와 좁은 도시생활 환경을 더욱 응지화하는등의 矛盾을 공공연히 恣行하고 있다.

집도 없이 그리고 태연하게 많은 세월을 두고 원망을 듣게 된다면 아찔 하지도 않은지 모르겠다. 아직은 우리들의 經濟的인 與件이 圓滿치 못한 實情이라 하더라도 建築行爲는 半永久的保存이 가능한 實情이므로 좀더 將來性을 감안하여 좋은 建築이 되어야 하겠다.

침차 꾸미는 한이 있더라도 計畫에 의하여 完璧한 工法으로 마무리 되어야 하리라 본다. 一時的인 與件만을 主題로 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일반 需要家들의 資材選擇 傾向도 徹底히 將來性을 감안 選擇되어야』 하겠다.

5. 바람직한 建築資材 選擇法

虛荒되고 奢侈한 외국예를 받아들이는 傾向은 없어져야 하겠고 장래까지를 감안한 우리현실에 적응할 수 있게 선택되어야 하겠다.

建築資材의 發展과 건축술의 發展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任視해야 할 사항이라면 역시 建築主의 태도라고 생각된다. 建築主가 經濟全般에 全權을 誇示하면서 任意로 建築資材를 選擇하는 傾向이 짙어서 設計者의 意圖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극히 조심스럽고 建築發展에 沮害를 가져오는 原因이 되기도 한다.

전공을 해도 建築資材의 範圍가 너무 넓어 실수할 수 있겠는데 비전문가가 적합하게 選擇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可能하면 設計者의 意圖대로 選擇해야 되겠고 設計者가 選擇設計된 作品대로 遵守하여 施行하는 길이가장 현명한 方法이 되리라고 본다.

完全히 錯誤없이 施行하려면 設計를 익히고 묻고 矛盾이 除法된 후 施行하고 設計者의 意圖를 살리기 위해 建築主는 資材의 現況과 새로운 개발품목의 多樣한 建築材를 잘 보고 들어서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現實을 잘 모르는데서 이해 못하는 점이 생기니 意見對立이나 임의 變更事項이 생기지 않도록 事前에 予防이 되어야 하리라 본다.

設計者는 물론 최근의 資本開發 狀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고 設計한 作品에 적합하고 妥當한 資材選擇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의 경주가 있어야 되겠다.

建築主들의 非常한 관심사로서 많은 지식을 갖춘 建築主들에게 失望을 주어서도 안되겠다. 年중 계속적으로 新聞을 써서 누구보다 먼저 最新資材에 대한 情報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建築設計者 본연의 자세를 확보하고 올바른 設計反映의 길이되고 建築主들의 길잡이가 되려면 역시 設計者 자신의 많은 노력과 공부를 계속해야 될것으로 믿는다. 그 래야만 올바른 資材選法이 施行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建築主들의 희망인 안식처를 마련해줄 수 있을것으로 본다.

또 믿고 의뢰할 수 있는 바탕이 되리라 본다. 최소한 비전문가인 建築主들 보다 못하다는 평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6. 建築資材 生産者들에게 원하는 점

간단히 요약하여 부탁을 한다면 시대에 適應하고 將來性까지 보장 이되는 질에 資材生産을 하여 주었으면 좋겠고 최소한 국내 生産材料의 불신감을 불식하고 선진 외국 대열에 설 수 있을 때를 조속히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장래 資材開發을 위하여 研究하고 投資하여 뒤따라 가는 生産業者가 아닌 앞서가는 生産者가 되어 선진 대열에 속히 자리를 굳힐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었으면 한다.

우리나라 전시에 하꼬방을 짓듯 그나마 수명이 1년에 몇번씩 출몰하는 生産者들의 失態를 벗어 날 수 있어야 하겠다. 一時的인 수입에 依存하고 投機的인 업태로 수지를 맞히려는 성급한 계산으로는 좋은 資材를 만들 수가 없으리라 본다. 지구력 있고 研究에 研究를 거듭해서 完璧한 資材를 生産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줄안다.

물론 生産者 單獨的인 研究보다는 需要者 측의 現實을 잘알고 선진대열의 정도를 알고있는 設計者의 諮問을 얻어 生産에 임하는 것도 기업운영 全般에 도움을 가져오리라 본다.

會社自體 機構로 연구실도 필요하겠고 그의 研究에 필요한 廣範圍한 材料 蒐集에 게을러서도 안되겠다. 대부분의 建築士들은 實際面에서 資材에 많은 研究와 関心이 있고 또 開發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필연성과 아쉬움을 지니는 터라 쉽게 諮問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資材生産者와 設計者가 좀더 밀착되어 힘을 합한 研究 結果로 生産에 임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믿는다.

본인의 經驗으로 미루어 實效를 거둘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나 할까? 자본투자(資本投資)에 비해 더 좋은 結果를 가져올 수 있는 方法이라고도 생각된다. 급성장의 꿈을 갖기보다는 드문드문 황소걸음의 成長이 안심되고 더 빠른 企業成長이 되지않을까 생각도 해본다.

노력한 만큼의 이익을 추구하는 誠實한 企業들이 되어서 잘크고 健在하여 세계적인 生産業체로 키워 나갔으면 하는것이 우리들의 바람이다. 또 생각을 걸드린다면 獨

占企業化하여 폭리를 꿈꾸기 보다는 分業化하여 보다 빠른 發展을 기하고 協業이 이루어져서 각자가 노력한것만큼의 댓가를 원하는 안정된 企業倫理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7. 資材展示회에 바라다면

出品業體들에게는 물론 더 많은 PR이 되어 企業에 도움이 되어야 하겠고 主管하고 수고한 협회는 일반 需要家들이 많이 보아서 建築士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 建築士 자신의 도움도 되어야 하겠다.

展示場이 狹小할 만큼 더 알차고 멋있게 전시가 되어야 하리라 본다. 品目選定書부터 展示方法, 종별분류등 確實하고 자신있는 展示會를 主管하여 주었으면 한다. 처음으로 지부가 주관했고 장소도 局限되어 마음껏 展示를 할 수 없었다고는 하나 그럴수록 더욱 확실하고 一目瞭然케 展示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본다.

누구도 다녀간 사람이면 참고되고 유익한 展示會를 말이다. 生産者인 出品業體는 더욱 자신있는 生産品을 展示해야 하겠고 主管하는 협회는 좀더 필요한 展示會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리라 본다.

메스컴의 P·R작업부터 시작하여 대관청문제도 現場에서 이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하겠고 建築士 자신들의 參與意識도 더욱 強調되어야 하겠다.

建築主 자신이 피부로 느껴 이해할 수 있도록 現場에 안내되어 대화를 할 수 있다던가 또는 스스로 觀覽케 하여 이해를 얻도록 한다는 새로운 覺悟와 보다 徹底한 展示會 계획이 豎立되어야 하리라 본다.

